

지난 주 말씀 요약 (4 / 1)

제 목 :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성경말씀 : 베드로전서 2 : 21 - 25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누리시다가
우리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가?

첫째,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다. (21절)

우리가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이 세상으로부터 삶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완전무결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
셔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셔서 하늘보좌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부터가 고난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출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다면 이 얼마나 고난을 받은 것인가? 오늘날처럼
현대식 마구간이 아니요 어둡침침한 곳에 배설물로 질척거리며
냄새가 진동하는 곳, 아기 예수님을 낳을 곳이 없어 구유에
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출산이 되신 것이다.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 궁핍의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이다.

둘째, 우리 대신 능욕을 당하셨다. (22절)

이 세상에 우리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나의 잘못 때문에 욕을 먹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잘못 때문에 침 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아주고 가죽 채찍
을 맞으며 능욕을 당해줄 사람이 그 누구인가?

내 가족과 친척들을 비롯하여 친구나 동창 동료와 회원들,
나를 좋아 하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대신 능욕을 받고, 내 대신 가시판을 쓰고,
내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내 대신 손가락질을 받고,
내 대신 수모를 당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받으시고 멸시 천대 비웃음
조롱과 가죽 채찍의 쓰라림과 능욕을 다 받아 주셨다.

셋째, 친히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며 지옥형벌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
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감당해 주셨다.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5-6)

허물 :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죄악 : 알면서도 지은 죄.
즉 예수님은 우리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나, 알면서도 지은
죄 값을 짊어지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시어 우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해 주셨다.
이를 대속(代贖) 또는 구속(救贖)이라고 하는데
바로 1980년 전,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야 한다.

1.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
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해보는 것이다.

2.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이웃을 위하여 욕을 먹어보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다 욕을 먹어보고, 이웃 주위 사람들을 위하다가 욕을 먹고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욕을 먹어보는 것이다.

3.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죽기까지 희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이웃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의 희생과 수고를 해보자.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이름에 무릎
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도 알아주시고 천국의 상급과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2012 - 15

2012 년 4 월 8 일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약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13. (새 찬송가 2, 6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쭙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 마르다가 말하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줄을 압니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마르다가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 아 멘 -

찬 송 : 150 (새 찬송가 160)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요한복음 11 : 17-27 신약 165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51 (새 찬송가 162)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2 (새 찬송가 3)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정명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채현숙 집사 (다음 정차성 집사)

기 도 : 박선옥 집사 (다음 이춘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공옥열 집사 (다음 채혜경 집사)

기 도 : 김영복 집사 (다음 허명례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부활절 안내

오늘은 부활주일로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심신을 가다듬고 정결함으로 참여합니다.

오후예배 후 2부 순서는

교구별 찬양경연과, 마태복음을 읽은 암송이있으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 금요기도회

13 일 밤 금요기도회는

6교구 전 구역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유미애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배재영 김용경 님, 풍암동 부영 아파트

☺ 심영창 님, 풍암동 중흥 아파트

지난 주 말씀 요약 (4 / 15)

제 목 :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길
성경말씀 : 요한복음 11 : 17 -27

천하 만물을 비롯하여 모든 인생들은 한 번 태어난 이상, 또 한 번 죽어야 한다. 이 죽음은 그 어떤 인생이든지 피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이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마르다” “마리아” 라는 두 자매와 “나사로”라 하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다. 부모님이 안계시고 탈선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삼남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을병이 들어서 멀리 다른 지방에 계시는 예수님께 기별하여 속히 오셔서 나사로의 죽을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고 다른 일을 보시다가 나흘 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지낸 다음에야 오셨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곧 자신이 모든 생명을 생성(生成)하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원동력임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생명이시고 부활이신가?

1.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요 존재토록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생명체든지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을 만드셨기에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는 죽었다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고 부활시키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2. 우리 죄 값의 형벌을 담당하고 새 생명을 주셨다.

인생에게 죽음은 왜 왔는가? 죄 값으로 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 값의 형벌을 다 받아 주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 받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 받으니까 죄 값으로 찾아왔던 죽음을 이겨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 하늘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3.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병들어 죽어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지내고, 시신이 점점 상하고 썩어가며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 한 마디로 살려내신 예수님. 어리석은 인생들이 예수님 자신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모르고 살아가므로, 인생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이시려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며, 죽고 썩어 냄새가 나도록 하였다가, 다시 살아나기가 전혀 불가능한 시체 나사로를 살리셔서, 자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이셨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보이신 것이다.

4. 자신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말에 “의사가 남의 병은 고쳐도 제 병은 고치지 못한다.” 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 내시고, 자신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때가 바로 1980 여 년 전 이때쯤이라, 이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부활절에 축제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느 사람들처럼, 말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부활이며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 말씀에 “죽어도”는 육신이 죽는 것을 뜻하고, “산다”는 영혼이 산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즉시로 살아나고 죽어서 소멸된 육신도 때가되면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는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내 죄 대신 죽으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 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즉시로 살아나고, 비록 육신이 죽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살아난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축복된 사실의 말씀이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 나가야 할 것이다.

2012 - 16

2012 년 4 월 15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44. (새 찬송가 1, 19.)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 것이다.

● 나 여호와와는 포도원지기가 되어 때때로 물을 주며

○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 나는 포도원에 노함이 없나니

○ 찢레와 가시가 나를 대하여 싸운다 하자

● 내가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 나로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목할 것이니라.

○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피어 결실하리라.

- 아 멘 - 이사야 27장에서

찬 송 : 102 (새 찬송가 94)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이사야 27 : 1 - 6 구약 995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아름다운 포도원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09 (새 찬송가 309)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정명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정차성 집사 (다음 임미이 집사)

기 도 : 이춘희 집사 (다음 김정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채혜경 집사 (다음 최은희 집사)

기 도 : 허명례 집사 (다음 김정란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남 녀 전 도 회 월례모임

오늘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

남 여 각 전도회 월례모임이 예전대로 각 실에서

열립니다.

함께하여 친목을 나누시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뜻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금 요 기 도 회

20 일 밤 금요기도회는

사라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유미애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배재영 김용경 님, 풍암동 부영 아파트

☺ 심영창 님, 풍암동 중흥 아파트

지난 주 말씀 요약 (4 / 122)

제 목 : 아름다운 포도원
성경말씀 : 이사야 27 : 1 - 6

포도원은 구약에서도 (이사야 5:1-4, 요한복음 15:1-5)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뜻하는데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임들을 뜻한다.

2절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고 하셨는데 곧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낙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는 데에는 ?

첫째,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모셔야 한다. (3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요 농부시며, 포도원을 돌보아 주시는 포도원지기이심을 나타내셨다.

그렇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을 이루려면,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해서도 아니며, 성도들의 수가 많거나 돈이 많아도 아니며, 그 첫째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이요 포도원지기로 모시는 것이다. 이러함이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없고, 또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도 않고 주인이나 포도원지기로 모시지도 않고도 무엇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형벌이라 아름답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외부적인 적을 물리쳐 아름답게 하신다. (1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포도원지기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포도원을 해하려는 외부적인 적을 물리쳐 주신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도 외부적이 적이 침입을 해서 싸움이 일면 파괴되어 그 곳은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없다.

본문에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용, 은 모두 마귀 사단과 그 영향을 받은 악한 세력 즉 외부적인 적들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크고 강한 칼로 심판하셔서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는 외부적인 적을 징벌하시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아름답게 지켜 나가신다.

셋째,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하신다. (3절)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위 말씀에 “포도원에 때때로 물을 준다.”는 뜻은 곧 포도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곧 그 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에 맞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다.

몸이 아픈 성도는 몸이 아픈 그때에 맞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 성도에게는 그 시작하는 일이 잘되도록 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이 군대에 간다면 또한 아들의 군대생활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출장을 간다면 출장에서의 일이 잘되도록 그때에 맞는 은혜로 도와주신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학교에 간다면 학교생활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시험을 본다면 또한 그 시험에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때에 알맞은 은혜를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므로, 교회와 성도 가정과 그 모임을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신다.

넷째, 내부적인 적을 제압하여 아름답게 하신다. (4절)

“질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질려와 형극은 포도원에 자생하는 가시떨기 나무와 쓴 뿌리들을 뜻한다. 이것들이 포도원인 교회나 성도들의 모임에 기생하면서 포도나무인 성도들을 꺾고 꺾고 괴롭히며 시험을 일으키는데,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아 불태우는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포도원을 평화롭고 이름답게 가꾸어 나가신다.

다섯째, 하나님과 화친케 하셔서 아름답게 하신다. (5절)

포도나무인 성도들 중에, 질려와 형극이나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이나 용의 영향력을 받아 잠시 교회나 성도들의 모임에 해를 끼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회개토록 하시고, 또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깨끗이 용서하셔서 포도원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을 아름답게 해 나가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하시므로 야곱이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원과 그 주위까지 아름답게 해 나가게 된다. (6절)

곧 오늘날 교회나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적들을 징벌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잘 이루고,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봉사의 열매 등을 잘 맺혀 나간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을 더 아름답게 하시며, 그에 따르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들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11. (새 찬송가 2. 42.)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겠느냐
-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비방을 받아야겠느냐
-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든지
-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 아 멘 -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찬 송 : 178 (새 찬송가 197)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고린도전서 10 : 29-33 신약 275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10 (새 찬송가 421)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정명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임미이 집사 (다음 홍희석 집사)

기 도 : 최은희 집사 (다음 이윤교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김정숙 집사 (다음 이정순 집사)

기 도 : 김정란 집사 (다음 이옥심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구역 연합 예배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4월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가족들과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드리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금 요 기 도 회

27일 밤 금요기도회는

요한 남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헌 신 예 배 안 내

다음 주 (29일) 오후 2시 예배는

요한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새날학교 교장 이천영 목사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유미애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배재영 김응경 님, 풍암동 부영 아파트

☺ 심영창 님, 풍암동 중흥 아파트

지난 주 말씀 요약 (4 / 22)

제 목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말씀 : 고린도전서 10 : 29 - 33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인간으로서 최대의 축복 받는 일이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당시 고린도교회에는 잡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설과 먹으면 안 된다는 설의 대립이 있었다.
먹어도 된다는 설은 =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인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허깨비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제사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에 얼마든지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이론이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설은 =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인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이 확실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잡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신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잡신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위 두 이론에 대하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하찮은 것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다.

“영광”은 원어로 δόξα (독사)인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좋은 생각, 좋은 태도를 가진다.”는
뜻이며, 이 어원에서 “찬미” “찬양” “영예” 라는 말이 파생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는 하찮은 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술, 담배, 도박, 마약, 컴퓨터
게임중독, 채팅중독, 쇼핑중독,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나
과도한 다이어트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운동이나 자기 몸
관리를 안 해서 허약해지고 병이 들었을 때, 과연 이러한 일
들이 하나님께 좋은 생각 좋은 태도를 가진 것이며,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되겠는가? 영광은커녕
오히려 욕이 되고, 하나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연약하고 부정한 인생들인지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드리는 날과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해졌다.

“예배”는 원어로 προσκυνέω (프로스퀴네오) 인데
“엎드려 입 맞추다”는 뜻이며,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
는 단어로 번역되어 성경말씀에 기록이 되었다.

예배(엎드려 입 맞추다) 에는 또한 이런 뜻이 있으니,

1. 신임합니다.

신뢰, 신임, 곧 믿고 의지하고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죄 값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님,
믿음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고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2. 사랑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을 바치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3. 굴복합니다.

나의 지식, 지혜, 사상, 자존심, 체면, 목적, 다 버리고 주님께
굴복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리고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이 가장 고상함이라.

4.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 형편,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무엇이든지 말씀에 순종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 1,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장 존귀하고 기쁘게 여겨야 한다.
- 2,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제일 우선으로 먼저 해야 한다.
- 3,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맘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둘째,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셋째,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한다.

넷째, 거리끼는 사람이 되지 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걸림돌,
거리끼는 자가 되지 말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2012 - 18

2012 년 4 월 29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들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8. 30. (새 찬송가 6. 1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이것도 지혜로운 말씀이라

◎ 재판할 때에 낮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 무릇 악인더러 옳다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 그 후에 네 집을 세울 것이니라.

◎ 상대가 나에게 잘못함 같이 나도 그에게 갚겠다고 하지

말라 - 아 멘 - 잠 언 24장에서

찬 송 : 96 (새 찬송가 84)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잠언 24 : 23 - 29 구약 936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네 일을 밖에서 다스려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90 (새 찬송가 433)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5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요한 헌신예배

사 회 : 홍희석 집사 (다음 강호원 집사)

기 도 : 류동하 집사 (다음 이매순 집사)

말씀증거 : 이천영 목사 (새날학교장)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경순 집사 (다음 이수현 집사)

기 도 : 이옥심 권사 (다음 정명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헌신예배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요한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새날학교 교장이신 이천영 목사님입니다.

함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 금요기도회

5월 4일 밤 금요기도회는

바울 남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복순 님, 진월동 대주 아파트

☺ 김만순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지난 주 말씀 요약 (4 / 29)

제 목 : 네 일을 밖에서 다스려라
성경말씀 : 잠 언 24 : 23 - 29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맞물려서
무엇이든지 개성을 살려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는 이를 바로 하도록
3 가지로 말씀하셨다.

첫째, 네 일을 밖에서 다스려라. (27절 상)

“네 일을 밖에서 다스려라”는 말씀은
어떤 일이나 말과 행동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좋게 여겨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볼 때에, 즉 제 삼자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하고 경영해 나가라는 뜻이다.

옛 어른들도,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의 뻘뻘어진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집 밖에서야 밝히 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정치권에 최시중 전 방통위장이 10 억대의 뇌물을
받아서 선거 자금과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그들의 세계에서 보면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대통령에 당선을
시켰으니 일등공신이요 그런 공로로 인해 실제로 행세를 했겠
지만,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나 법에 적용할 때에도 그렇게
좋게 보아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다.

삼성가에 법정투쟁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섭
섭하면 법정소송까지 하겠는가?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사람은 꿈에도 생각 못할 수천억의 재산,
또한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거부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 때
문에 형제간에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인가?

재벌들이 문어발 지네발 식으로 골목 상권까지 휘어잡는다.
그들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이지 번영이라 하겠지만 그 일이
과연 공공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공감할 수 있는 일인가?

위에 말한 예들은 규모가 큰일들이라 그 잘못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규모가 작아서 자기만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객관적으로야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일이 잘못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합리화 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자기가 기준이
되거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일들의 기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며
밖에서 볼 때에도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다.

둘째, 밭에서 예비하라. (27절 중, 눅 8:5-15)

“밭”은 곡식을 심어 거두는 밭에 비유하여 마음을 뜻한다.
신약 복음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하였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으며 “옥토(沃土)”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하셨다. 즉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그 말씀에 비추어보며
자신의 말과 행동과 어떤 일들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사람의 모든 언행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계획이 되고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사람
마음에서 잘못 계획이 되고 시작이 되면 그 말과 행동도 잘못
되고 그 이루고자 하는 일들도 뻘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말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행동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피서
그에 합당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여 계획하라는 것이다.

셋째, 그 후에 네 집을 세워라. (27절 하)

언행심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도 바르고 합당한 일이 되도록
마음 밭에서부터 잘 살피고 예비를 하였다면, 이제는 그 생각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여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함께 하여 도와주시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진행시키는 일들이 잘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서 우리에게서는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려라 할 때에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

1. 재판할 때에 낮을 보아주지 말라. (23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이 자기와의
친분 관계나 금전의 유익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쳐 나간다. 그러므로 분별과 판단을 잘해야 한다.

2.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24절)

생명이요 삶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한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서 나가야 한다.

3. 행한 대로 갚는다 하지 말라. (28절)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무결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도리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너그러움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작은 일에서 큰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뤄 나가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8. (새 찬송가 1. 2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게으른 자여 개미의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 자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 네게 가난이 강도 같이 오며

◎ 네게 궁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 아 멘 - 잠 언 6장에서

찬 송 : 43 (새 찬송가 40)

기 도 :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잠언 6 : 6 - 11 구약 915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행복하게 사는 비결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05 (새 찬송가 559)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5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강호원 집사 (다음 오정순 권사)

기 도 : 이매순 집사 (다음 조희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수현 집사 (다음 류정희 권찰)

기 도 : 정명숙 집사 (다음 김정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월례제직 모임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월례 제직모임이 있습니다.

제직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금 요 기 도 회

5월 11일 밤 금요기도회는

사라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사 경 회 안 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광주 제일기도원에서

서울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의 사경회가 열립니다.

7일(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복순 님, 진월동 대주 아파트

☺ 김만순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천제영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김나미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지난 주 말씀 요약 (5 / 6)

제 목 :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성경말씀 : 잠 언 6 : 6 - 1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에 비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만들지를
못하고 지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개미에게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하셨는데
말씀에 나타난 개미를 살펴보면,

- 1) 성실하다.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충성한다.
- 2) 자발적이다. 감독이 없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 3) 때를 맞춰 일한다. 때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춰 일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첫째,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이유 중 하나가
게으름을 부리고 핑계 대며 성실하게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에는 귀천(貴賤)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빈둥거리는데 이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분수 이상 편하고 좋은 일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 근로자들을
쓰고 있고 그도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 마음에서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건전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이기주의와 안일한 생각들이 자리 잡은 때문이다.

또 성실히 일한다는 것은 무조건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제일 많다. 그런데 생산성은 제일 떨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 그 내용이 성
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성실히 일한다는 것은, 일을 하되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일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가나 회사차원의 큰 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설거지 하나를 해도, 가장 쉽고 안전하고 빠르고
깨끗하게 물을 절약하며 설거지를 했다면 이는 성실하게 일
한 것이다. 이렇게 하찮은 일에서 큰일까지 성실히 행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둘째, 돈을 쓰는데 성실히 써야 한다.

돈도 써야 한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다.

돈을 성실히 쓴다는 것은, 먼저
수입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월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이 350만 원을 지출하면 이는 돈을 성실히 쓴 것이 아니다.
오늘날 지자체 도시들도 수입이상의 돈을 빌려다가 쓴 것으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가 경제위기에
몰려 있는 것도 수입이상 지출을 하여 돈을 성실하게 쓰지를
아니했기 때문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수입이상의 돈을 쓰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어 파산에 이르고 이는 곧 불행과 직결된다.
또한 돈을 쓰되 꼭 필요한 곳이나 선한 일에 돈을 우선 쓰는
것이며, 같은 돈을 써도 그 효과가 크고 많이 나타나는데 써야
한다. 돈을 성실하게 쓰는 것은 행복한 삶에 비결이다.

셋째, 성실하게 사랑해야 한다.

가정은 사랑의 근원지이며, 실천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네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언어와 표현을 쑥스러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사람이 어떤 표현을 아니 해도
마음 속 비밀까지 다 아시고 그에 따라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마음에는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외부적일 표현이 없을
때는, 상대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나 자신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실히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도 진실한 사랑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외부적으로 잘 표현을 해야 한다.
부부 사이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허물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남편은 아내와
3~40년을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한
다는 말을 한 번도 아니했다고 한다.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
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며 더디 한다.

이렇게 해서도 한 평생 함께 살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자신들도
행복한 삶이라고는 느끼기는 힘들며, 보는 사람들도 과연 그런
부부사이를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실히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친구들이나 또한
교우들끼리도 따스한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쓰며 사랑을 하되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한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들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품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8. 11. (새 찬송가 6. 42.)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마가복음 12장에서

○ 부활이 없다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여쭙되

●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의 후사를 이으라 했나이다.

○ 칠 형제가 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여 후사가 없이 죽고

● 둘째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이 죽고

○ 그 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 일곱 사람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 부활하여 살아날 때는 그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천사처럼 되느니라.

찬 송 : 96 (새 찬송가 84)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마가복음 12 : 18-27 신약 75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부활과 그 오해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51 (새 찬송가 162)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5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오정순 권사 (다음 백원덕 집사)

기 도 : 조희숙 집사 (다음 김수미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유정희 권찰 (다음 정수경 권찰)

기 도 : 김정숙 집사 (다음 이해진 권찰)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금요기도회

5월 18일 밤 금요기도회는 한나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봄을 보내며 ”

한

봄이 갑니다.

내 삶도 따라 갑니다.

겨울엔 그리도 봄을 기다렸건만 ...

활~ 짝~

꽃을 피우거나

좋은 열매 자리 잡지도 못하고

내 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좋은 꽃 좋은 열매 맺히지도 못하러면서

왜 그리도 봄을 기다리며 부풀었는지

이제 여름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키우는 시간은 정작 여름입니다.

따가운 해님, 두렵기도 하지만

땀 흘려 열매를 키우기엔 안정맞춤입니다.

열매를 키울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아홉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조금씩이라도 다시금 키워내 보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현주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백감님 님,

화정 3동 주택

지난 주 말씀 요약 (5 / 13)

제 목 : 부활과 그 오해
성경말씀 : 마가복음 12 : 18 ~ 27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은 다른 사람도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불가능하게 여긴다.

그러나 자기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못 하는 일들을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세상의 현실들이다.

한 예로 스마트폰의 효용성은 얼마나 대단한가? 손바닥 안에 드는 그 작은 것에 책 몇 천권의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아무 선도 없는 그것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미국에까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하여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를 않는다. 사람 자기들이 죽음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부활을 시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다.

본문에 사두개인들은 구약 다윗 왕 시대에 “사독”이라는 유명한 제사장의 후손들이다. 다윗 왕 시대에도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급이었고 신약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의 지도 계급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중요시해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뛰어 넘은 것은 믿지를 아니했다.

그렇기에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부정하고 배척 했다.

그렇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부활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부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완전무결하게 이루시는 만능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

첫째, 사람은 부활한다.

사람에게 죽음은 왜 왔는가? 죄 값으로 왔다. 그렇다면 죄 값을 해결한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 값을 다 담당하고 해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죄 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죄 값을 담당해주신 예수님의 공로가 덧 입혀져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 받고, 죄 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즉시로 살아(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자신께서 대속(代贖)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의 비난 질문에 너무도 당당하고 확실하게 부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둘째, 천사들처럼 부활한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는 육신의 연약함과 부정함은 완전히 뛰어넘어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무엇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시공을 초월한 완전하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은, 지금은 미국을 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그만큼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가 따르는데, 부활의 몸은 미국을 가려는 마음을 먹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즉시로 미국에 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남 여 간에 이성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형제애로서 유지된다.

부활의 모습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제일 좋은 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부활되어 신체적인 결함이 없이 되고, 각자의 개성의 아름다움을 갖춘 최상의 형태로 부활을 한다.

한 예로 소아마비로 태어난 사람이나 교통사고로 온 몸에 장애가 있거나 폐암으로 죽었다 하여도 죽을 때의 늙은 모습이나 장애가 있는 모습이 아닌 완전한 몸으로 천사들처럼 부활한다.

셋째, 천국에서 살다가 부활한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형체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다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육신이 숨을 멈추게 되고 이것을 죽음이라 하는 것이다.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장례절차를 치르게 되고, 그 영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즉시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자기 죄 값을 짊어지고 즉시로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그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몸의 죽음과 더불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서 복락을 누리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이 세상에 온다.

우리에게는 이런 천국의 복락과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

2012 - 21

2012 년 5 월 20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9. (새 찬송가 1. 29.)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여호수아 14장

○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중 모세가

○ 가데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 나와 함께 갈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했으나

●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되리라 하였으니

●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니,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었더라. - 아멘 -

찬 송 : 13 (새 찬송가 64)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여호수아 14 : 6 - 15 구약 341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갈렙의 신앙과 축복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97 (새 찬송가 357)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5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백원덕 집사 (다음 임예진 집사)

기 도 : 김수미 집사 (다음 채현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정수경 권찰 (다음 고명숙 권찰)

기 도 : 이해진 권찰 (다음 최숙희 권찰)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회 소식 *****

1. 남 녀 전도회 월례모임

오전예배 후 12시 10분에, 예전대로

각 실에서 남 녀 각 전도회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 회장단에서는

남 녀 각 전도회원들의 생년을 기록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금요기도회

5월 25일 밤 금요기도회는

마리아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선교 예정

본 교단 선교부의 계획에 따라서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외국 미복음 지역에 대한

담임목사의 선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마리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현주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백감님 님,

화정 3동 주택